

홍콩 도심 점거 25일째... 시위현장을 가다



지난 18일 밤 홍콩 가우룽(九龍)반도의 몽콕 도심에서 한 젊은이가 '堅守(견수·굳건히 지키)'라고 쓰인 깃발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홍콩=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거리로 나온 속내는 '취업·주택난' 때문

### “가난한 중국인 때문에 홍콩 침몰” 반중 감정도 한몫 대만·중 등 시위 지지 연예인들 본토 활동 봉쇄될 듯

홍콩=박정욱 기자

지난 18일 밤 8시30분, 홍콩 가우룽(九龍)반도의 상업지구 몽콕, 바리케이트가 설치된 도로에 시위대의 전막이 있고, 그 주변엔 학생과 시민들이 도로를 점거한 채 열띤 토론을 하고 있었다. 바리케이트 앞에는 홍콩 경찰 20여명이 시위대를 주시하며 교통통제를 하고 있었다. 주위를 지나던 관광객과 쇼핑객들은 잠시 멈춰 시위현장을 지켜봤다.

홍콩의 시위는 다소 혼란스러웠다. 늘 상 보아왔던 광주에서의 시위와는 달랐다. 생각보다 시위대 수도 적었고, 조직적이지도 않았다. 경찰도 시위대보다는 쇼핑객들의 신호안내에 여념이 없었다.

도로 점거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민주화를 위해 조금의 불편은 감수해야 한다는 옹호론과 장기간 점거로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반대론도 있다.

몽콕에서 만난 한 택시기사는 “시위가 너무 길어지고 있다. 자신들의 의사를 충분히 전달했으면 이제 점을 줄도 알아야 한다”고 반대했다. 그는 “10일정도 했으면 됐지 20일 넘게 할 필요는 없다. 좀 지켜본 뒤 반응이 없으면 또 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젊은이들은 뭘 원하나=홍콩 시위의 직접적 계기는 행정장관 선거 문제다. 지난 2007년 홍콩정부가 2017년부터 행정장관을 직선으로 뽑기로 했지만, 최근 중국정부가 별도의 지방위원회에서 뽑힌 후보들만 직선에 나올 수 있다고 결정

한 것이 발단이 됐다. 직선이 아닌 간선으로 선출한다는 결정이다. 완전 직선에 대한 요구와 기대가 높아지던 상황에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이다.

여기에 반중 감정도 더해졌다. 본토 중국인들이 홍콩으로 밀려와 뿔뿔이 떨어져 살아가고 있다. 그로 인해 반중 감정이 커졌다. 가난하고 수준 낮은 중국인들이 몰려와 홍콩을 침몰시킬 거라는 두려움이 젊은이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도로점거는 젊은이들의 미래와도 직결돼 있다. 심각한 취업난과 주택난에 대한 불만이 겹쳐 도로로 뛰쳐나왔다는 분석이다.

최태식 코트라 홍콩무역관장은 “시위의 직접적인 발단은 행정장관 직선제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심각한 취업난과 주택난 등 경제적인 불만이 젊은이들을 행동으로 나서게 했다”고 분석했다.

◇도심 점거 25일째=22일 현재 도심 점거는 25일째 이어지고 있다. 범원의 ‘도심점거 해제 명령’이 새로운 이슈로 부상했다.

특히, 중국 무장경찰 병력이 홍콩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시위대 3000여 명은 전날 저녁 이뤄진 정부와의 대화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않자 도심점거 시위를 이어갔다. 고등법원이 점거해제를 명령한 홍콩섬 애드미럴티(金鐘) 지역의 시타타워(中信大廈) 주변, 가우룽(九龍)반도 몽콕(旺角) 지역의 네이션(彌敦)로드, 아가일(亞答老)거리 일부 등 3곳의 점거도 풀지 않고 있다.

그러자 택시조합 법률대리인 등은 범원으로 부터 받은 ‘점거 해제 명령서’를 몽콕지역 바리케이트에 붙이고 시위대를 ‘압박’했으며, 일부 버스회사도 22일 몽콕지역의 바리케이트 철거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시위대와 대립하고 있다.

도심점거 시위가 이어지자 중국 무장경찰이 시위 진압을 위해 출동태세를 갖췄다는 관측이 나왔다.

허난(河南)성에 주둔한 무장경찰 128사단이 최근 홍콩에 인접한 광둥(廣東)성 심천으로 이동해 홍콩에 진입할 준비를 마쳤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신(博訊)이 21일 보도했다.

해당 사단은 홍콩 시위사태가 대화로 해결되지 않으면 홍콩에 진입해 시위를 진압하면서 시위대를 체포한 후 그들을 중국으로 압송할 것이라고 보선은 전했다.

◇연예계에도 ‘불통’=홍콩 시위를 지지하는 홍콩과 대만의 연예인들의 중국 본토에서의 활동이 봉쇄될 전망이다. 22일 홍콩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신랑(新浪)홍콩은 중국 당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지지하고 있는 29명의 홍콩 및 대만 출신 연예인, 감독들을 중국 본토의 연예시장에서 축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연예인은 류더화(劉德華), 랑차오웨이(梁朝偉), 저우룬파(周潤發), 황추성(黃秋生), 귀부정(郭富城), 진성무(金城武), 장자후이(張家輝), 정수원(鄭秀文), 황관중(黃貫中), 두원췌(杜汶澤), 덩쯔치(鄧紫棋), 천연시(陳妍希), 우용강(蘇永康), 정중지(鄭中基), 허윈스(何韻詩), 세안치(謝安琪) 등이라고 신랑홍콩은 소개했다. 감독에는 리안(李安)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들의 수입은 격감할 전망이다. 이들 대부분은 홍콩보다 시장 규모가 큰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jwpark@kwangju.co.kr

# ‘北 억류’ 美 파울, 반년만에 석방

### 수감자 2명 남아

미국 국무부와 백악관은 북한에 억류됐던 미국인인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씨가 6개월 만에 석방됐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로써 북한에 아직 억류된 미국 시민권자는 케네스 배(46)씨와 매튜 토드 밀러(24)씨 등 2명이다.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파울 씨가 북한을 떠났으며 곁의 미군 기지를 거쳐 오하이오주 고향에 있는 가족을 향해 돌아오고 있다”며 “북한 당국의 석방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파울 씨 석방은 긍정적인 결정”이라면서 “그렇지만 우리(미국 정부)는 배 씨와 밀러 씨가 아직도 계속 수감돼 있다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에 다시 한 번 이들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파울 씨는 지난 4월 29일 북한에 들어가 함경남도 청진을 여행하던 중 성경책을 몰래 유포한 혐의로 5월 7일 출국 과정에서 체포됐다. 북한 당국은 그에게 ‘적대행위’ 혐의를 적용해 기소를 준비해왔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번 석방 과정에서 미국의

이익대표부(protecting power) 역할을 하는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이 협상을 맡았다고 소개했다.

스웨덴 대사관은 북한 내 미국 시민과 관련된 문제에서 북한과 외교 관계가 없는 미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미국 정부는 그러나 스웨덴 대사관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다만, 북한 당국이 파울 씨의 석방 조건으로 풀려나는 즉시 그가 북한을 떠날 수 있게 운송 수단을 동원하라고 요구했고, 미국 국방부가 북한 측이 제시한 일정에 맞춰 항공편을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미군 항공기의 국내 진입을 허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파울 씨가 석방됨으로써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은 2명으로 줄었다.

북한은 지난날 14일 재판을 열어 미국인 관광객 밀러 씨에게 6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 밀러 씨는 관광증을 찢는 등 입국 검사 과정에서 범법자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 또 2012년 11월 방북했다가 억류된 배 씨는 작년 4월 ‘국가전복 음모죄’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연합뉴스

# “북, 핵 개발 중단면 6자회담 가능”

### 사일러 美 국무부 6자회담 특사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21일(현지시간) 북한이 핵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유예하고 현행 핵 프로그램을 중단할 경우 6자회담 재개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이러 특사는 이날 워싱턴DC 카네기평화연구원에서 열린 제네바회담의 20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6자회담 재개의 전제조건을 묻는 말에 “만일 북한이 회담복귀를 선언하면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유예하고 핵활동을 중단하는 시나리오를 상상해보라”며 “전 세계는 북한의 태도에 근본적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러 특사는 “우리의 목표는 완전하고 검증 가

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핵폐기이지만 현실적인 비핵화 경로가 있다고 본다”며 “핵물리학자인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지적한 대로 ‘더이상 핵폭탄을 만들지 않고(no more bombs), 핵폭탄을 실험하지 않고(no testing), 핵폭탄과 관련 기술 등을 수출하지 않는(no export)’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비핵화 대화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2007년부터 2년 간 이어졌던 협상 계도도 되돌아갈 수 있다”며 “핵활동 중단에 서부터 불응화, 해체에 이어 궁극적인 핵포기로 나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진정성 있고 믿을 수 있는 6자회담 과정은 비핵화 추구에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아베 내각, 위안부 강제연행 역사 지우기 확대 양상

### 외무성 문서삭제·유엔보고서 수정 시도... 고노발언도 문제시

군 위안부 강제연행을 역사에서 지우려는 아베 내각의 노력이 전면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지난 7월 고노(河野) 담화 검증을 통해 ‘강제연행의 증거가 없다’는 주장을 재확인한 아베 내각은 8월 초 아사히 신문의 오보 인정(제주도에서 여성들을 위안부로 강제연행했다는 오사다 세이지씨 증언을 토대로 작성한 과거 기사 16건을 취소한 일)을 계기로 강제연행을 부정하는 주장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펴고 있다.

최근 “10대 소녀까지 포함된 많은 여성을 강제로

위안부로 만들고”라는 문구가 담긴 아시아여성기금 호소문을 외무성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1996년 일본군 위안부를 ‘성노예’로 규정하고 일본 정부에 사죄와 배상을 권고한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의 일부 철화를 작성자에게 요구한 것이 그 예다. 아울러 내각의 실질적 2인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1일 강제연행을 긍정한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전 관방장관의 고노담화 발표 당일(1993년 8월4일) 기자회견 발언이 “큰 문제”라며 결코 넘어졌다. /연합뉴스

**10월 24일 OPEN**

순천 최초 **수익형** 미니아파트 리가안

**적게 투자하고 크게 누려라!**

1억투자시 월160만원 수익

신협순도리 100

생활편의·교통·문화·교육의 중심에 위치

지상 2층의 하늘정원과 면 폭대기층의 옥상해변정원

구. 순천만정원박물관이 1km내에 위치 (순천만 정원 조망권)

무인택배시스템, 쿠폰시스템

**1599-1129** [ 268 리가안에 주목하라 ]

29㎡ 35㎡ 52㎡

M/H\_홀플러스 몽덕점 주차장 뒷편

**SAMSUNG** 삼성전자 파트너 굿모닝 하이넷

**속타는 에너지 비용 삼성이 책임집니다!!**

**비용**

에너지 절감의 혁명!!

등유대비 68% 절감  
전기 54%  
도시가스 42%

고정비용을 줄여라!!

시설 원예, 병원, 모텔, 폐서, 어린이집, 목욕탕, 요양원 등

지역 특판점 및 영업사원 모집

**삼성전자히트펌프보일러**

남방 전문점 대표번호 **1644-8983**